

會訓  
 ● ● ●  
 創 奉 誠  
 意 仕 實

# 漁港消息

발행경 孫井植 特務 韓國漁港協會  
 편집인 孫井植 發行人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종로구남동103번지  
 TEL. 3673-2851~3  
 ISSN 1227-7053 568-6651~2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e-mail: kfpa8769@chollian.net

[月刊] 第130號

THE FISHING PORT NEWS

1998年 10月 25日(日曜日) [1]

## 올 어항시설공사 순조

### 전국서 8개항 준공 대체로 계획공정 앞서

올해 어항시설공사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없이 계획공정을 앞서는 등 순조롭게 진행, 총 59개항 63건중 9월말 현재 8건이 준공 완료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소록산도, 현포항 등 태풍진로권에 위치한 어항공사도 예정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중이

며 돌산(준설), 신수, 거진(준설), 임원(준설), 수품, 청산도, 읍천, 외연도항 등 8개항이 준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9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투자되는 24개 어항도 10월19일 현재 모두 착공,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건의했다.

건의내용에 따르면 공사용 예·부선은 자재 및 중기운반 등 공사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항하고 있어, 각종 화물을 전문적이고 전업적으로 운송하기 위해 운항하는 선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 대상이 아니라는 요지이다.

특히 어항공사용 석산이 항외에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석재 운반을 위해 항내를 벗어나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나,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단속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해양수산부의 조치로 항계 또는 평수구역 내에서만 운항하는 공사용 예·부선의 선박검사가 면제됨에 따라 사실상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도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왜냐하면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의 대상은 선박검사(제조검사)를 받은 등기·등록된 선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신규지정 17개 어항

### 2001년부터 본격 개발

오는 2001년부터 신규지정 17개 제1·3종어항이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9일 신규지정 고시된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소재 선진포항,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소재 공현진

항 등 17개 1·3종어항에 대해서 내년부터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어항정책심의회를 거쳐 어항시설계획을 오는 2000년까지 확정, 2001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 어항 항만 공사용 예·부선 면허없어도 항계 운항가능

어항 및 항만공사 시공을 목적으로 공사용 자재 및 중기 운반을 위해 항계 또는 평수구역을 한시적으로 운항하는 예·부선은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항내를 벗어나 평수구역을 운항하다가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법 위반으로 적발된 공사용 예·부선은 선박검사를 면제 받음에 따라 면허없어도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항계 또는 평수구역내에서만 운항할 목적으로 건조시 제조검사를 면제 받은 부선이 건조 후 공사용 자재를 운송하기 위하여 항계 또는 평수구역 을 벗어나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조검사에 준하는 정밀검사를 수검토록하여 불법운항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이 지침은 항계 또는 평수 구역을 벗어나 운항하는 예

·부선에 한하여 선박검사를 수검토록 하고 있어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온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예·부선은 선박 검사없이도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7월 어항시공업체들의 애로건의를 수렴, 해양수산부에 어항공사 시공을 목적으로 공사 기간중에만 한시적으로 공사용 자재 및 중기 운반을 위해 항내를 벗어나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예·부선에 대하여는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

### 국내 첫 해양생태공원

서해안 소래포구 상류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일대 공유수면매립지와 폐염전에 국내최초의 해양생태공원이 오는 2007년까지 들어설 계획이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인천

남동구가 생태공원조성을 위해 지난해 말 신청한 논현 도립동일대 공유수면 23만5천여평에 대한 매립계획(수도권 해양생태종합공원 1차조성지)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어항협회와 일본전국어항협회의 교류가 10년을 맞게 됐다. 지난 88년, 당시 일본전국어항협회 야노 회장의 초청으로 한국어항협회 회장으로서 제40회 일본전국어항대회에 참가한 이래 어느덧 강산도 변한다는 한 세대 10년이 지난 것이다.

지난 10월 8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일본전국어항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은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이 행사와 관련하여 일본 수산타임즈를 통해 언급한 바 있지만 10년이 흐르는 세월동안 어항어촌시찰, 기술서적교류, 어항기술교류회의 등 양국 어항인간의 우호증진과 기술교류는 우리 나라 어항발전은 물론 협회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과 33년간을 끌어온 한·일어항협정의 개정으로 그 의미와 빛을 더하게 됐다.

돌이켜 보면 양국의 어항협회 역사에서 쉽게 드러나듯이 일본이 반백년의 어항사를 기록하는 동안 우리는 어항발전에 관한 의식도, 어항의 필요성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

게다가 급격한 산업화에 밀려 수산업을 완전히 사양 산업으로 간주, 더욱 위축되게 만든데다 이렇다할 수산정책마저 없었던 것이 솔직한 현실이었다.

바로 그런 시점에서 한국어항협회의 창립을 좀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우리 수산 업계로서는 천운이었다. 그 결과가 한·일어항협회 교류 10년만에 결실로 되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한국어항협회가 일본전국어항협회에 대해 교류를 제안했을 때 그들이 선택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사실 이해득실을 놓고 보았을 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줄 것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어항관련 모든 부분은 양국 어항협회의 역사만큼이나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그로부터 10년, 이제 우리 한국어항협회도 상당부분 일본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무엇보다도 어항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 조사연구 홍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실적을 쌓고 있으며, 또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동토에 한알의 밀알을 심는 심정으로 출발한 양국어항협회교류가 이제는 싹이 돋고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한·일 어항협정은 그동안 정책적으로 무시했던 어항부문 투자에 대한 반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어항협정 지도만 놓고 우리 나라가 일본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 것은 아닌가. 또는 앞으로 막대한 어업 피해가 예상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엔 너무도 준비된 것이 부족하다. 수산업의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는 어항부문의 정비가 전혀 안된 현실에서 그동안 수산업은 잊혀진 산업이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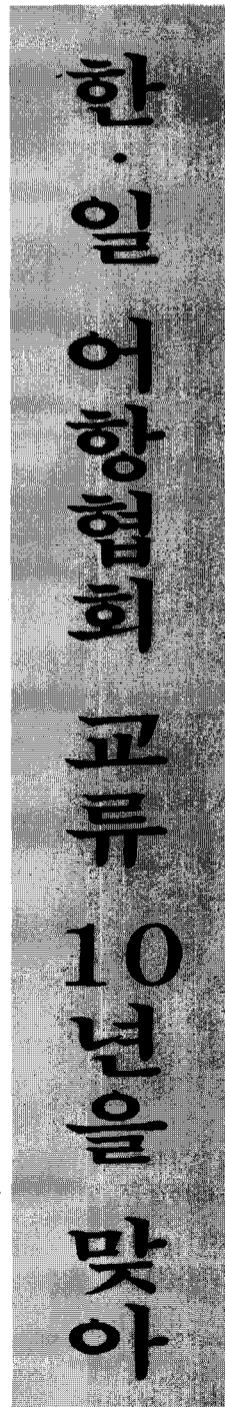
새삼 한·일 어항협정으로 이런 문제가 돌출되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수산업에 대한 우리의 자각은 어찌면 앞으로도 물밑 깊숙이 숨겨져 버렸을 논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제부터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다. 총 수산예산의 60% 이상을 어항예산에 할애하고 있는 일본은 어찌면 그동안 많은 세월과 자금을 이 순간을 위해 투자해 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낯선 의지와 추진력이 있다. 하면 된다는 신념도 있다. 한·일 어항교류 10년 만에 일본어항기술 50년에 접근한 그런 속도라면 우리도 한 번쯤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생긴다.

문제는 어항에 대한 인식의 혁명적 전환이다. 일부 몰지각한 계층의 편파적인 인식이 바로 잡힌다면 빠른 시일내에 우리도 일본의 어항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다.

한·일 어항교류 10년사가 어찌면 꽃을 피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인지도 모르겠다.



### 2002년까지 SOC투자 지속확대

#### 기획위 중기재정계획

정부는 균형재정의 회복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02년까지 농업 교육부문 등에 대한 직접지원을 대폭 줄이되 물류비 절감에 따른 생산성 제고와 수출지원 등 전후방 효과가 크고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난 사회간접자본투자는 계속 늘려 나가기로 했다.

최근 기획예산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중기재정계획의 주요 정책과제'에 따르면 2000년

부터부터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더라도 당분간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가피한데다 국제수적으로 인한 만성적 재정적자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보수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위는 이 같은 운영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발표해 향후 3~5년간의 재정목표치를 제시하고 각 부처로 하여금 적극적인 재

정지출 효율화에 나서도록 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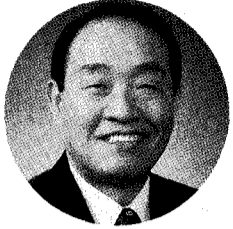
기획예산위는 특히 그동안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교육 농업 수출지원 등에 대한 직접지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과 중심으로 전환,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그러나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과 수출증대를 위해 SOC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보화와 인력개발 등에도 적극 나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동

정

### 말레이시아 교통부장관 접견



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13일 말레이시아 교통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 해운협력 및 상호 관심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 이 자리에서는 특히 말레이시아 포트켈랑의 신항인 West Port와 우리나라 광양항의 상호 기항문제를 논의, 16일에는 전남 여수 신항부두에서 개최된 해상기동방제종합훈련에 참석.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10월8일 일본 동경 국제포럼에서 개최된 전국어항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전 및 제50회 전국어항대회에 초청되어 대회참관과 함께 주요 어항을 시찰하고 9일 귀국. 16일 전남 여수 신항부두에서 개최된 해상기동방제종합훈련에 참석. 이어 어항청순 어항904호를 순시, 선장·기관장 등 승선원을 격려하고 더욱 성실한 자세로 어항청소에 임해줄 것과 안전운항에 철저할 것을 당부. 17일에는 호텔신라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주최 「미래 전자정부 비전 정립 및 구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10월20일 수협회의실에서 한·중 민간어업 의견교환회의를 개최, 21일에는 새어업인상 시상식을 거행.

▲안성봉 한국선박안전기술원장은 10월19일 본부 회의실에서 전국지부장회의를 주재.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0월12일 광주 우정의 사절단 임시총회에 참석, 14일에는 한·일친선협회 한국방문 환영식에 참석, 18일에는 지리산 삼도봉 3개도 방향표시상징물 설치 제막기념 행사에 참석, 22일에는 순천 낙안읍성 음식전시관에서 열린 제5회 남도음식대축제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10월8일 광주매일 회장배 제5회게이트볼대회를 개최, 24일에는 청소년년도 제14회송원문예백일장을 개최.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0월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행사에 참석, 9일에는 경영자총협회 세미나에 참석, 10일에는 부여백제문화제에 참석, 15일에는 호텔신라에서 열린 21세기경영인클럽 세미나에 참석, 22일에는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0월1일 건설공제조합 목포출장소 개소식에 참석, 9일에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참석, 16일에는 광주상공회의소 주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시찰에 참여, 21일에는 경찰의날 53주년기념행사에 참석.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0월8일진도공사현장에 출장, 18일에는 전남기계공고 총동문 체육행사에 참석.

▲황금주 동광건설주식회사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기획관리실 투자심사담당관 장맹수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장 유병수 △어업진흥국 자원조성과장 김영규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박균홍 △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 서무과장 박규현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 이장훈

### 이전 안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항

만부는 최근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47-9(신한빌딩 4층) 번지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전화번호 : 430-7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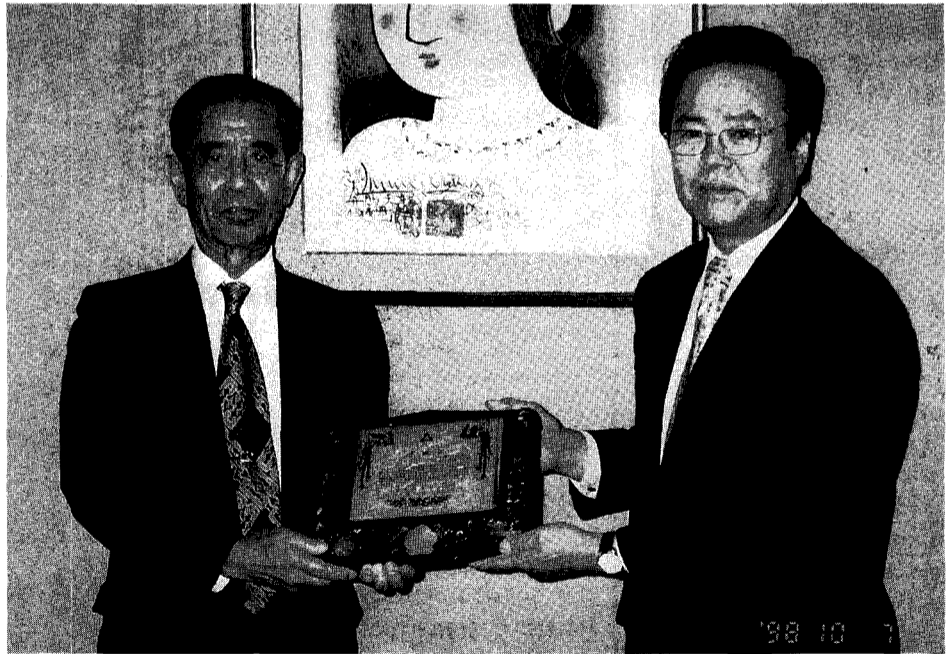
### 의 비 남 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단체
  - ▲삼부토건주식회사(회장 조남욱)
  - ▲조흥공영주식회사(사장 박규연)
- 개인
  - ▲김시문씨(전 수산청 차장)
  - ▲안희도씨(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 ▲김용식씨(주식회사사단컨설턴트 항만부 이사)
  - ▲김용덕씨(마산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사과)



■ 10월 8일 일본 동경 국제포럼에서 개최된 전국어항협회 창립 50주년기념식전 및 제50회 전국어항대회에 초청되어 단상에서 행사를 참관하고 있는 손정식 회장(단상 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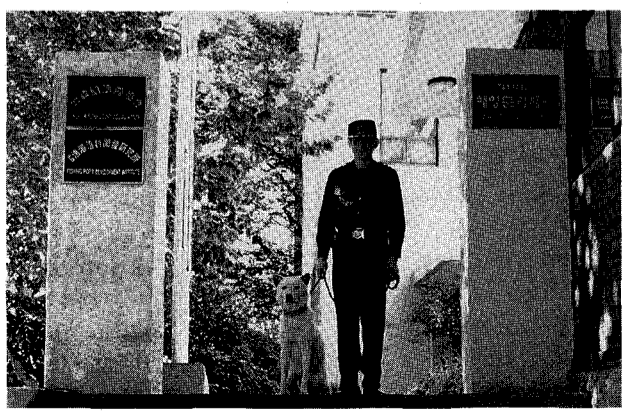


■ 손정식 회장은 10월7일 전국어항협회 창립 50주년기념식전 전야 만찬장에서 韓·日 어항교류의 물꼬를 트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어항발전과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矢野照重 전 일본 전국어항협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장은 10월9일 나주영산교 건설공사현장에 출장, 15일에는 전남 장성군에서 전직원 농촌일손돕기 베타기 작업을 실시.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0월1일 제주도 지사공관에서 열린 전국체전 환승연에 참석, 30일에는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세미나에 참석.

▲송재성 주식회사상호종합건설 회장은 10월7일 여수공사현장에 출장.



■한국어항협회는 최근 청사 경비건으로 생후 11개월된 순종 진도견을 구입, 이름을 '포트(어항)'라 짓고 청사경비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몰이후 협회를 방문하시는 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구조물 검사업무 전면 개편

### 해양수산부 시공사 중심으로

어항 항만 등 해양구조물에 대한 시설검사업무가 시공사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항 항만 등 해양시설물에 대한 건설행정 효율화를 위해 준공검사, 기상검사 등 공사관련 검사업무를 시공사 중심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를위해 해양수산부는 이달 중 지방청 등 일선 행정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검사업무관련 시행실태 및 개선사항을 집중 점검키로 했으며 내달 중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검사업무는 중복검사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가 하면 공사진행에도 지장을 주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검사업무규정의 개편으로 건설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설공사 해도보전을 위한 수로조사 등을 준공검사와 동시에 실시, 중복검사에 따른 경비부담을 줄이고 검사업무로 인한 건설공사의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약식 기상검사제도를 도입, 매달 정기적으로 기상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사비의 지급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 적시집행을 통해 시공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검사관 직급을 하위직으로 하향조정하여 검사관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한편 검사항목 및 점검사항을 구체화해 검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다.

## 제한적최저가제 연내 폐지

### 지역제한·지역공동급도 축소

1백억원이상 공사입찰에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대입찰제가 오는 2000년까지 전면 폐지된다.

또한 58억3천만원 미만의 정부공사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제한적최저가낙찰제는 연내 최저제로 변경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의 규제개혁대상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일반공사와 전문공사의 입찰이 특별한 수의계약이유가 없는 한 모두 적격심사를 통한 최저가입찰로 바뀌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제한적 최저가를 폐지하는 대신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제를 적용키로 하고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지역업체 보호장치였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와 지역제한경쟁입찰도 2000년까지 사업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나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규정중 연대보증인제도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 9대 신항만사업 전면 재조정 2001년까지 투자비 35% 감축

정부는 민자유치가 부진한 보령신항, 새만금신항 등 2개 신항만에 대한 시설투자를 오는 2006년까지 전면 유보하는 대신 그 재원으로 화물 적체 해소가 시급한 부산신항, 광양항, 인천북항 개발 사업에 집중투자키로 했다.

또 민자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평택(아산)항, 울산신항, 목포신항, 포항영일신항 등 4개 신항은 지속투자 대상으로 선정, 민자유치사업 및 배후산업단지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신항만개발 정책설명회를 갖고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와 민자유치 부진 등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9대 신항만사업의 동시추진이 곤란한 점을 감안, 현재 추진중인 9대 신항만 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항만시설 확보의 시급성, 경제적 효과, 국가경쟁력 제고, 사업추진의 용이성

등 4개 항목 12개 요소에 대한 투자평가를 통해 국가경쟁력 확보와 화물적체 해소가 시급한 집중투자대상항만으로 부산신항, 광양항, 인천북항 등 3개항을, 민자유치사업 및 배후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지속투자대상 사업으로는 평택(아산)항, 목포신항, 울산신항, 포항영일신항 등 4개항을 각각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배후산업단지개발과 민자유치가 어려운 보령신항, 새만금신항은 IMF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2006년까지 사업추수를 전면 유보하고 향후 경제회복과 산업단지, 민자유치 등 관련계획과 연계해 착수시기를 재검토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신항만 투자정책방향과 관련, 물동량 증가추세에 대비해 신항만개발사업계획의 규모는 당초대로 하되 단계적 사업투자시기를 조정, 사업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 어항어촌 환경정비사업 촉구

## 日, 제50회 전국어항대회 성료

### 손정식 회장 초청 참석

제50회 전국어항대회가 10월 8일 일본 동경 국제포럼에서 개최됐다.

일본 전국어항협회장의 초청으로 전국어항대회에 참석한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이날 중·참의원 농림수산위원장 및 위원, 농림수산성 정무차관, 대일본수산회장, 전국어항협회장, 전 국 시·町·村 어항관계자, 수산관련단체, 어업인 등 총 4천 여명이 집결한 대회장에서 그들이 어항어촌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의견을 결집하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과정 등을 참관했다.

50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서 어항어촌 관계자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어업지역 경제사회 발전과 아름다운 일본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자부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21세기를 향한 200해리시대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산업의 구축이나 국민의 휴식장

이 되는 연안 지역의 활성화와 환경의 유지보전이 긴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수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수산업 경영체질을 개선 강화하여 국민에게 보다 고품질의 수산물을 값싸게 제공하고, 연안역의 자연환경을 수호하기 위하여 어업과 환경보전을 담당하며 살아가는 어촌을 더욱 안전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제9차 어항정비장기계획의 강력한 추진으로 어촌지역사회자본



■일본 제50회 전국어항대회에서 농림수산성 정무차관, 중의원, 참의원, 전국의 어항관계자 등 4,000여명이 참석, 어항어촌발전을 위한 총의를 결집하고 있다.

을 충실하게 하는 것은 불가피한 시책이며 침체된 경기 회복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이번 대회가 일본 수산업의 새로운 전개를 기약하는 장이 될 것을 기대하며 △제9차 어항정비 장기계획의 추진과 1999

년도 예산의 증액확보 △어항어촌 환경정비사업의 확충 강화와 1999년도 예산의 증액확보 △제6차 해안사업 7개년계획의 추진과 1999년도 예산의 증액확보 △어항 등대의 설치의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안과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제50회 전국어항대회 어필

우리 어항어촌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에게 양질의 다종다양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어업지역에 있어서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아름다운 일본국이 되도록 반세기에 걸쳐 열심히 노력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건강하고 풍요로운 수산일본형 생활이라 일컬어지고 세계 제일의 장수국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이나 어업이 살아있는 것이, 연안역이 아름답고 푸르른 국토와 해안환경의 유지보전에 큰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수산업을 둘러싼 제정세는 여전히 냉엄하고, 21세기를 향한 200해리시대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산업의 구축이나 국민의 휴식장이 되는 연안지역의 활성화와 환경의 유지보전이 긴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나라의 수역을 유효하게 이용한 기르는 어업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수산업 경영체질의 개선·강화,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국민에게 보다 고품질의 수산물을 값싸게 제공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연안역의 자연환경을 수호하기 위하여 어업과 환경보전을 담당하며 살아가는 어촌을 더욱 안전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받는 공간으로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기서 우리 어항어촌 관계자는 제50회 전국어항대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전국민을 향해서 우리나라의 수산업이나 어항어촌이 국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역할을 이해, 지원해 주시기를 어필하는 동시에 진행중인 제9차 어항정비장기계획의 보다 강력한 추진에 의한 어촌지역사회자본의 충실이 이와같은 목표달성에 불가결한 시책이고, 또한 현재의 침체된 경기의 회복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 제50회 전국어항대회 결의문

어항 등의 정비수준은 안전대책에 있어서 아직 저위에 있고, 또 어촌에 있어서의 생활환경의 정비도 도시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져 있으며, 일대 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연안역의 생활화에 충분히 이바지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음은 매우 유감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본적이고도 조속한 경기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으나, 어항관계사업은 경기를 자극하는 수단으로서 극히 효과적이고, 살기 좋고 활력 있고 그리고 재해에 강한 어항어촌 조성을 촉진하는 일은 시기 적절한 것이다.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수산업

을 핵으로 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그 입지조건이나 투자효과의 면에서 어항어촌의 일체적인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항어촌 정비의 중요성에 대하여 계속 국민의 한결같은 이해를 요구하면서 제9차 어항정비장기계획의 추진을 중심으로 하는 제시책이 강력히 실시되도록 전국 어항관계자의 총의를 모아 정부와 국회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실현을 강력히 요망한다.

- 1. 제9차 어항정비 장기계획의 추진과 1999년도 예산의 증액확보
- 1. 어항어촌 환경정비사업의 확충강화와 1999년도 예산의 증액확보
- 1. 제6차 해안사업 7개년계획의 추진과 1999년도 예산의 증액확보
- 1. 어항 등대의 설치의 추진

# 내년도 일본 어항예산 2,169억엔 요구

신에너지 고도정보화에 중점

일본 수산청은 1999년도 어항관련 사업예산으로 2천1백68억9천1백만엔(전년비 1.0% 증액)을 요구했다.

그 내용으로는 어항어촌 정비사업에 통상예산 1천8백75억8천4백만엔과 특별범위 1백28억6천3백만엔 등 2천4억4천7백만엔, 어항해안사업에 통상예산 1백52억5백만엔과 특별범위 9억7천4백만엔 등 1백61억7천9백만엔 그리고 재해복구사업에 2억6천5백만엔이다.

내년도 일본의 어항어촌 정비사업은 △수산시책공동 프로젝트 △신 에너지 △고도정보화 △환경위생관리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중 어항정비(수축·개수·국부개량) 사업은 특별범위

89억1천5백만엔을 포함하여 1천6백10억8천5백만엔, 어촌 환경정비(공해·환경·집락) 사업은 특별범위 35억5천9백만엔을 포함 1백97억7천8백만엔, 어항총합정비(총합·이용·조정) 사업은 특별범위 3억3

천9백만엔을 포함 71억7천8백만엔, 어항관련도로사업은 특별범위 5천만엔을 포함 42억7천9백만엔 그리고 기타(조사·보조유차액등)사업에 81억2천7백만엔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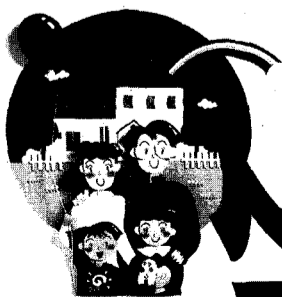
1999년도 일본 어항관련사업예산 요구 총괄표

(금액단위 : 백만엔)

사 항	1998년도 예산	1999년도 특별범위					합 계	전년 대비 (%)
		요구액	생활 중점화 범위	물류 효율화 범위	경제발전 기반 범위	특별범위 계		
어항어촌정비	198,390	187,584	8,296	1,476	3,091	12,863	200,447	101.0
어항정비	161,660	152,170	5,014	1,426	2,448	8,915	161,085	99.7
어촌환경정비	17,175	16,219	3,115	-	444	3,559	19,778	115.2
어촌총합정비	7,178	6,839	140	-	199	339	7,178	100.0
어항관련도로	4,257	4,229	-	50	-	50	4,279	100.5
기 타	8,120	8,127	-	-	-	-	8,127	100.0
어항해안	16,014	15,205	816	-	158	974	16,179	101.0
해안보전시설정비사업	10,368	9,875	553	-	118	671	10,546	101.7
해안환경정비사업	4,422	4,082	263	-	40	303	4,385	99.2
공유지조성호안정비사업	160	170	-	-	-	-	170	106.2
기 타	1,064	1,078	-	-	-	-	1,078	146.0
재해복구	575	265	-	-	-	-	265	46.1

# 행복한 생활설계를 위한 저축과 폭넓은 위험보장을 동시에!

넓은 내일을 약속하는 수협공제



# 저축과 위험보장을 동시에!

### 높은 수익률 보장

슈퍼저축공제는 적립부분 순공제료를 「이 공제의 약관대출이율 -1%」로 분리적립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 다양한 생활설계

공제기간을 2년, 3년, 5년, 7년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실 수 있으므로 자녀학자금,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생활설계가 필요합니다.

### 재해사고시 대형보장

재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와 사고시점까지 적립된 적립금액을 지급해 드리므로 더욱 큰 보장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입안내

- 가입연령 : 만 15세~계약 만기연령 70세
- 가입한도 : 500만원~1억원(100만원 단위)
- 공제기간 : 2년, 3년, 5년, 7년
- 납입방법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 ■ 수협공제 상담 .....

- 수협중앙회 공제사업부
- ☎ : (02)240-2865~6, 2871
- 전국 수협점포



### 아침에 빵을 먹는 사람은 이것을 주의하자

단신 부임으로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나 독신자들은 아무래도 아침을 소홀히 하기가 쉽다.

특히 하루 활동을 시작하는 중요한 아침에 식사를 거르면 혈액 중의 포도당이 적어지기 때문에 혈당치가 저하된다.

인간의 몸을 관리하는 뇌세포의 에너지원은 포도당뿐이므로 그것이 부족하면 추위나 땀이나 오한 등을 느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리는 사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역 근처에서 우동이나 라면을 먹거나 밤에 빵집에서 사놓은 빵에 버터를 발라서 커피 한 잔과 함께 먹는 것이 대개의 아침 식사 레퍼토리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런 아침은 영양의 밸런스가 나쁘고 몸에도 그다지 좋은 식사가 아니다. 의학적인 관심에서 보면 역시 아침은 밥에 된장국, 생선 한 토막과 김구이 같은 것이 식탁에 놓여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우선 무엇보다도 쌀에는 상상 이상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로서 분류되는 국수, 우동, 빵보다는 훨씬 밸런스를 취한 식품인 것이다. 게다가 장점이 쌀에는 섬유질이 풍부하다.

최근에는 아침을 빵으로 하는 가정이 대부분인데, 쌀의 뛰어난 점을 잊고서 서양풍의 식사를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사실 양식이라 해도

일반 가정과 같이 치즈나 버터, 야채 사라다, 과일 주스 같은 균형있는 것으로 먹는다면 걱정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잼을 바른 토스트에 커피뿐이라든가 스프게티만으로 식사를 대충 끝내는 데 있다. 또 고기나 야채 같은 것이 적은 면류로 끝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 단백질과 섬유는 확실히 부족하다. 따라서 고기나 야채, 감자 같은 것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그에 알맞은 것으로 오징어를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징어는 양질의 고단백질이며 섬유질도 있어 마요네즈와 함께 먹으면 훌륭하다.

소련 코카사스 지방은 세계적으로 장수촌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 원인은 맑은 공기와 적절한 노동을 해가면서 사는 것인데 최대의 요인은 역시 식품 내용에 있었다.

이 부근은 곡물로서는 빵을 먹는 지방이지만 충분히 정제되지 않은 가루를 사용한다.

또 각 가정에서는 산양을 길러서 매일 아침 금방 짠 우유를 마시고 있다. 또 잣이나 호두 같은 열매를 많이 먹는다.

따라서 고단백질로 섬유질이 많은 균형을 취한 식사가 된다. 성인병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수궁이 갈 것이다. 대강 우동이나 라면, 빵으로 끝내는 사람은 코카사스 사람의 식생활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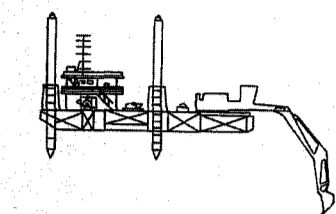


그림 2.4.1 백우선의 선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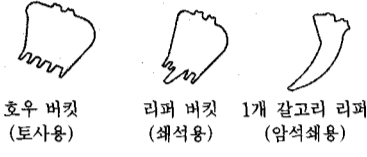


그림 2.4.2 버킷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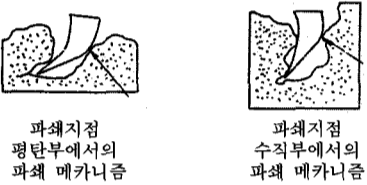


그림 2.4.3 버킷의 파쇄·굴착메카니즘

### 2.4.2 표준적인 시공순서

백호우선 준설의 표준적인 시공순서를 그림 2.4.4에 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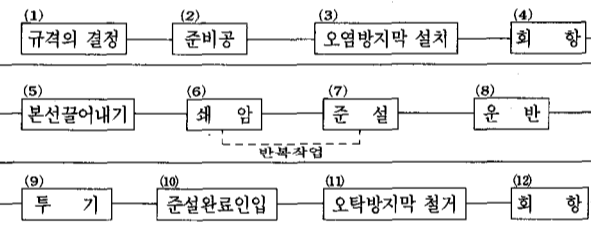


그림 2.4.4 표준적인 시공순서

### 가처분·가압류

#### 1. 보전(保全)절차의 필요성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가령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거나, 주택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지불했는데도 집을 판 사람이 다시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판 후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이 채무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 확정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가압류, 가처분이다.

#### 2. 가압류·가처분의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이고, 가처분이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

는 처분을 말한다(그 외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처분도 있다). 가압류·가처분은 종국적인 판결, 즉 승패가 날 때까지의 임시 조치이므로 앞에 '가'자를 붙인 것이고,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경우 가압류, 가처분에 앞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데, 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 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3. 가압류·가처분의 종류

·부동산 가압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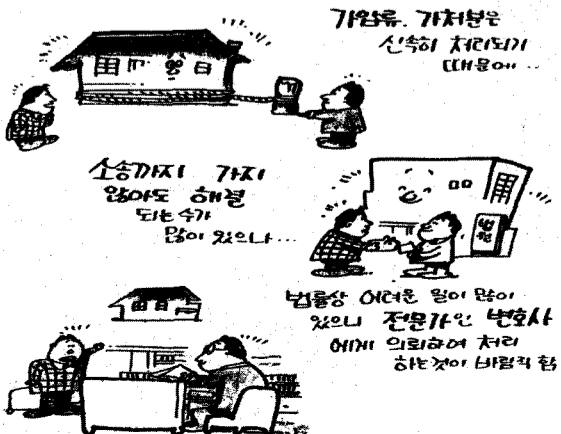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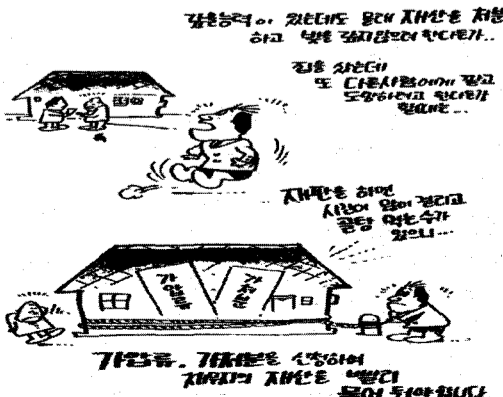
채무자의 특정부동산(토지, 건물)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한다. ·유체동산 가압류 채무자의 유체동산(냉장고, 텔레비전 등)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한다. ·채권 가압류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을 받지 못하도록 채권을 가압류 한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한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매매, 양도하는 등의 처분을 못하도록 한다. 4. 유의사항 이와 같은 가압류·가처분은 신속히 처리되므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가압류·가처분만으로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이 해결되어 버리는 일이 자주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신청방법이나 신청 후의 조치, 상대방 채무자의 이의 등으로 법률상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므로 가압류·가처분은 대단히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

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공무상표시무효제

형법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집행관이 가압류한 물건을 처분한 경우 또는 물건에 붙여놓은 가압류표시가 기재된 종이쪽지를 찢어버린 경우, 출입이 금지된 압류표시를 무시하고 토지에 들어가서 경작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당구장을 압류하되 채무자로 하여금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사용이 허용되었는데 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음식점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도 처벌을 받게 된다.



생활활동

생활활동